

개화계몽담론과 놀이의 근대적 재편

- 『매일신문』을 중심으로 -

손 남 훈*

차 례

- | | |
|----------------------|------------------------------|
| I. 개화주의자들의 계몽담론 층위 | V. 국가 폭력 독점의 한 양상, '편싸움'의 제거 |
| II. 호출되는 놀이 | VI. 마무리 |
| III. 노름의 금지와 놀이관의 혼동 | |
| IV. 근면의 강조와 허용되는 놀이 | |

I. 개화주의자들의 계몽담론 층위

19세기 말, 개화주의자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인적자원과 지식적 권위의 기반을 생산하여 근대국민국가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심적인 논의들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서양 사회와 같은 문명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문물·정치제도·풍속 등 다방면에 걸친 개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조선민의 정신적·물질적 삶을 향상시키려 했다. 그러나 당대 개화주의자들은 단지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가져와 변용함으로써만 계몽담론을 생산하지는 않았다. 개화주의자들이 바라본 대한제국이라는 당대의 여러 사회적·문화적 기반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은, 여전히 전근대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다. 때문에 그들은 서구의 문물을 통한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의 여러 사회·문화적 기반들의 변형과 금지·제거¹⁾를 통한 통제의 강화를 제도화하고 이를 담론화 하여 백성들을 국민으로 계몽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물 혹은 근대 서구에 대한 개화주의자들의 논의만을 살펴서는 당대 계몽담론의 일부만 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들이 계몽하고자 했던 백성·동포·인민들의 문화적 담론의 층위는 여전히 근대의 바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계몽담론이 당대 민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근대적 담론을 변용하여 새로운 측면으로 끌어와야 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사회·문화적 기반들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몽 전략은 필연적으로 근대적 담론과 전근대적 담론이 혼종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개화주의자들의 계몽담론은 일관된 기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천방향이 모색되지 못하고 당대의 물질 토대들의 양태에 따라 수시로 몸바꿈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계몽담론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전근대적 문화의 기반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려는지 살피고 그 속에 내재한 계몽의 논리와 그 균열의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는 전근대적 문화 중 ‘놀이’에 집중하여, 개화주의자들이 ‘놀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1) 본고에서 ‘금지’와 ‘제거’라는 용어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것임을 밝혀둔다. ‘금지’가 국가 권력이나 지식인의 계몽적 담론의 개입에 의해 개인적 혹은 집단적 풍속과 그 담론에 제약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면, ‘제거’는 이러한 ‘금지’가 내면화되어, 기존 담론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놀이를 예로 하면, 각종 노름은 ‘금지’되었지만, 편싸움은 ‘제거’된 것을 들 수 있다. 노름은 현재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도 암암리에, 혹은 변형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반면, 편싸움은 특정 시기에 법적, 폭력적 규제와 그 규제의 내면화를 통해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재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지’되는 풍속과 ‘제거’되는 풍속을 구분해야 하며, 제거된 풍속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찰을 요구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계몽담론과 연결시켜 놀이를 재편하려 하는지 『매일신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계몽담론의 내적 논리와 혼종 양상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고가 『매일신문』을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당대 신문이 교과서·잡지·단행본 서적 이상의 파급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대의 잡지가 엘리트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으며²⁾, 단행본 서적이 각각의 성격에 따라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신문은 일반 백성의 계몽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매일신문』은 최초의 사설 일간지이기에, 계몽담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독립신문』과 논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진 『독립신문』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며, 『독립신문』 못지않은 대중적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³⁾, 매체의 문자는 곧 수용 독자층을 제시한다라고 전제할 때, 『독립신문』과 같이 한글 전용 신문이었다는 점 역시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일신문』 텍스트 하나로만 당대의 모든 놀이 관련 담론들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1898~1899년에 놀이와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었던 ‘채회국 사건’의 경우, 『매일신문』보다는 『독립신문』에 더욱 자세하고 많은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⁴⁾ 그러므로 본고

2)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제13호』, 한국독서학회, 2005.06, 223~224쪽.

3) 『매일신문』은 기존에 발간되었던 『협성회 회보』가 천여 부에 이르지 일간으로 발간하기로 하여 만들어진 신문이다. 『매일신문』의 영향력은 『독립신문』에게도 미쳐, 이에 자극을 받아 『독립신문』도 1898년 7월 1일 부로 일간신문으로 바뀌게 된다. 『독립신문』의 발간부수가 최대 3천여 부였음을 감안하면, (천정환, 앞의 논문, 224쪽) 『협성회 회보』가 『매일신문』으로 바뀐 것은 그간 독자층의 확대가 있었던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또한 윤독이나 강독사~전기수들의 신문 읽어주기, 돌려읽기 방식, 신문종람소 설치 등으로 실제 독자층은 발간 부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때 신문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채백, 『신문』, 대원사, 2003, 49~53쪽과 신용하, 『독립신문 연구』, 일조각, 1980, 34~35쪽 참조.

에서는 『매일신문』을 중심 텍스트로 하되, 필요할 경우 『독립신문』과 그 뒤를 이은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놀이 기사를 분석하여, 당대 개화주의자들이 신문지면을 빌어 어떠한 논리로 전통적인 놀이들을 변형·금지·제거하려 하였으며, 어떠한 놀이들을 허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생산해 낸 놀이 관련 기사에 내재하고 있는 ‘근대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계몽담론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호출되는 놀이

호이징하에 따르면⁵⁾, 놀이는 실제 삶의 현장과 완전히 단절된 또 다른 시공간을 창조하여, 그 속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세계를 형상화 한다. 그러므로 놀이는 실제의 참/거짓, 선/악의 구별이 의미를 갖지 않는 잉여의 행위이다. 그러나 놀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실을 모방하여 형상화 한다. 『매일신문』 잡보에 이와 같은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모방놀이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요사이 오셔안에 각동리 으히들이 여러 십명식 세를 지여 양철 납팔과 양철 북을 만드러 가지고 각 대터 병당들의 교련하는 모양을 효측하야 인국가를 부르며 기예를 연습하느디 납팔 부는 귀절과 북치는 제도며 발맞추는 철?? 죠곰도 차착이 업는지라 으히들 쓰지 이긋치 균정을 연습 하야 인국하는 모습을 발하는것을 보니 우리 나라 인종들을 죠곰만 힘써 르러치게 되면 세계에 강병이 될네라 (『매일신문』, 45호, 잡보, 3면, 1898.05.31. ?는 문자 식별 불가, 이하 인용문에 신문명이 없으면 『매일신문』임.)

4) 채회국 관련 기사는 『매일신문』에 1회가 실려 있을 뿐이나, 『독립신문』에는 논설과 잡보란에 두루 걸쳐 총 22회 기사화된다.

5) J.호이징하 저·김윤수 역, 『호모루덴스』, 까치, 1998, 9~27쪽.

이 기사는 아이들 놀이의 새로운 풍속인 ‘병정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이 놀이는 신식군대가 훈련하는 이국적 풍광을 아이들이 모방한 전형적인 미미크리(Mimicry)이다.⁶⁾ 그러나 기사는 이러한 놀이풍속 자체보다 ‘세계에 강병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힘써 ㄱㄹ치’어야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인 G.W.길모어의 『서울 풍물지』⁷⁾는 서울지역에서 아이들이 행하던 놀이에 제기차기, 개(犬) 괴롭히기, 새총놀이, 줄넘기를 소개하고 있고, 가장 대중적인 놀이로 연날리기,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놀이로 편싸움(石戰)을 언급하고 있다. 곧 이 놀이들은 이 당시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놀이 풍경이다. 하지만 『매일신문』 기자가 채집한 놀이는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닌, 계몽 기획에 합당성과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놀이인 ‘병정놀이’를 호출하고 있다. 그러나 ‘병정놀이’는 현실을 재구성하여 형상화하는 놀이의 일반적인 특질에 따른 놀이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강병’이나 ‘애국’의 논리와는 관계없는 단순한 흥내내기이다. 그럼에도 신식 교육의

6) 로제 카이와에 따르면, 놀이는 크게 네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각의 특성이 실제 놀이에 적용될 때 그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한다. 카이와가 언급한 놀이의 네 가지 특성은 아곤(경쟁), 알레아(운), 미미크리(모의), 일링크스(현기증)이다. 아곤은 둘 이상의 놀이참가자가 경쟁을 벌여 승부를 결정짓는 형식의 놀이들이 갖는 특성이며, 알레아는 주사위 등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오로지 운에 맡기는 형식의 놀이들이 주로 갖는 특성이다. 미미크리는 현실 세계에 대한 가장이나 모방형식을 띤 놀이들의 그것이며, 일링크스는 인간의 육체에 일정한 혼란을 가함으로써 재미와 쾌감을 얻는 놀이들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다. 그런데 이 네가지 놀이의 특성은 특정한 놀이 속에서 하나의 특성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둘 이상이 결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꿉놀이는 미미크리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놀이이며, 널뛰기는 일링크스와 아곤이 결합된 놀이이다. 한편 이 네 가지 특성들은 파이디아와 루두스 사이에 놓인다. 파이디아는 무규칙적이고 혼란스러운 놀이의 형태들이고, 루두스는 엄격하고도 복잡한 규칙에 따른 놀이의 형태들이다. 물론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를테면 야단법석과 폭소는 퍼즐게임보다 파이디아적이며, 퍼즐게임은 야단법석과 폭소보다 루두스적이다. 자세한 사정은 로제 카이와 저·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35~70쪽 참조.

7) G.W. 길모어 저·신복룡 역, 『서울 풍물지』, 집문당, 1999, 121~139쪽.

당위성이라는 계몽담론을 홍보하기 위해 호출되고 있다.

말하자면 『매일신문』 기사에 실리는 아이들의 놀이는 스스로의 재미를 위해서 행해지는 자유로움이라는 놀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개화담론을 산출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상황 설정의 매개물로서의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연날리기 역시 교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계몽적 의도에서 기사화 되고 있다.

일전에 장교에서 청인이 연을 날이는데 오희들이 또한 연을올려 청인에 연줄을 베어먹는 사뭇에 청인이 오희들의 날이는 연줄을 손으로 쓴 엇더니 학교에 다니는 오희는가 지는다보고 분함을 익이지 못하여 그 청인의게 달여들어 대단히 꾸짖이니 엽회서 보는 사람들이 그오희에 지기를 충찬하고 희는말이 즈식은 나흐면 학교에 보니아 흐겟다고 흐더라 (『협성회회보』, 11호, 내보, 2면, 1898.03.12)

청이나 일본과는 달리, 조선에서 연날리기는 흔히 연싸움을 의미했다.⁸⁾ “청인”이 자신들의 연줄을 끊는 “오희”들의 행동에 “연줄을 손으로 쓴”는 것은 이와 같은 풍습을 “청인”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히려 청인이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면서, 청인을 꾸짖은 “오희에 지기를 충찬”한다. 단순한 삽화 같은 이 기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청인의 입장에서선 당연한 보복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의 국적이 청나라라는 점, 꾸짖는 아이가 “학교에 다”닌다고 기사가 수사를 붙여놓고 있다는 점에 있다.

8) 카를로 로제티 저, 윤종태·김운용 역,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학 연구소, 1996, 331쪽. “연놀이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연줄로 상대방의 연줄을 자르는 경기이다. 연줄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유리 가루를 뿌린다. 그리고나서 아마도 도시의 맞은편 어딘가에 있을 상대를 찾아 각자의 연줄이 서로 만날 때까지 달린다.” 이처럼 한국 연놀이는 연싸움이 일반적인 놀이의 형태였으나 이를 알 리 없는 청나라 사람은 자신의 연줄을 끊는 행위에 대해 분개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독립협회의 기본 노선을 따른 『매일신문』은 청나라에 대한 반감과 일본에 대한 호감이라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근대 계몽의 아시아적 모델로 상정됨으로써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한국 계몽주의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나, 청의 경우, 서구열강에 의해 본토가 잠식당해 가는 과정을 한국 계몽주의자들이 목격하면서 미개한 봉건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이 기사의 기자는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를 은근히 드러낸다. 또한 ‘미개한’ 청인과 “학교에 다니는” 계몽한 “아희”의 대립에서 “아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백성이 국민으로 계몽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논리를 유포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만이 계몽 기획에 따라 호출되지는 않았다.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놀이판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기사도 결론적으로 계몽담론의 한 양상을 드러낸다.

진고기 왜장터에서 일본사람들이 원승이와 잡술을 부리는데 대한사람들이 만히가서 돈을너며 구경 호는지 구름 궂흔지라 일본 사람이 공허지디에 휘장을 치고 어름물과 과자를 파는 압해서 대한사람 호나이 담비 모판을 낫코 팔디 그일인이 나와서 녀의 장스호는 터압해서 담비를 낫코 판다고 모판을 뒤집어 노흔죽 담비 장스가 달너드러 일인을 붓 잡고 호는말이 공허지디에서 물건 파는것을 네가엇지 시비호며 녀의 물건을 못쓰게 만드러 노앗다고 뺨을 싸린죽 다른 일인들이 달너드러 싸리려 호미 그사람이 눈을 부릅쓰고 분을니여 말호되 이싸흔 너희에게 도계 덩호여 준것도 아니오 당당호 우리나라

대황데 폐하괴서 통활 호시는 대한 모든 인민의 따히어늘 너희가 도로혀 주인을 나가라 호은 무슴 말인지 알슈 업스니 누구던지 나서면 영스판으로 가서 지판 호즈호미 그 일본 사람들이 이윅히 생각 호다가 말이 원천장 울호니가 다 도라셔고 다시는 디답도 아니 호더라니 우리나라 사람이 도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호다가 지금은 담비장스 쓰지라도 도계를 분간호며 나라따홀 녀의게 일치 안으려 호니 이는 점차로 민국이 흥왕홀 근본이더라 (47호, 잡보, 3면, 1898.06.02.)

전통적인 놀이판은 연기자와 입석자 및 관객의 구분이 있으나 그 구조가 엄격하지 않아 관객은 흥겨움이 절정에 다다르면 언제든지 놀이판에 드나들 수 있었다. 또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고된 생활에 활력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⁹⁾ 따라서 놀이판 주변은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로 흥청거렸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장사꾼 역시 모이게 마련이었다. 곧 놀이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려는 장사꾼들이 어우러진 놀이판 주변의 풍경은 “대한 모든 인민”들에게는 낮익었고 놀이판 안에서 노점상이 위치해야 할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거나 장사꾼이라 하여 배척하지는 않았다. “일본사람들이 원숭이와 잡술을 부리는” 놀이판에서도 “대한 사람”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 일본인은 놀이판의 이러한 풍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어름물과 과자” 판데 방해가 된다하여 한국인 담배노점을 뒤엎어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놀이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 뿐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놀이공연들은 한국의 그것과는 달리, 대부분 돈을 내고 입장해서 구경해야 한다는 점, 기존 놀이에서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 조선인에게는 기이하고 신기하게 여겨졌다.¹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이고 때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히 놀이판에서 벌어진 시비거리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기자는 ‘담비장스’가 대한 사람이 대한 땅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대한국민으로서의 주체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개화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역설한 계몽 효과가 여실히 나타났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 기사

9) 이상목,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 출판부, 1996, 17~23쪽.

10) G.W.길모어는 이러한 조선인들의 성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새롭고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해 이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낱말 중의 하나가 바로 ‘구경’이다. 그들은 대단히 구경을 좋아한다.”(G.W.길모어, 앞의 책, 128쪽.)

를 신고 있다. 나아가 ‘담배장스’를 개화주의자들의 논리를 내면화한 이상적 ‘국민’으로 상징함으로써 개화논리의 입지를 확인 및 확보하기 위한 예시근거로 두고 있음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기사 역시도 놀이 행위 자체가 갖는 의미나 본질보다는 놀이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시비거리를 구체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개화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계몽적 담론을 표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기사이다. 즉 이 기사는 담배장사로 대표되는 개화된 ‘국민’들은 애국계몽의 논리를 이미 내면화 하고 있으며,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백성’들에게 개화의지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매일신문』에 나타나 있는 놀이들은 그 속에 계몽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논리를 은연 중에 강조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놀이 관련 기사들을 다수 실고 있다. 그렇다면 『매일신문』에 나타나는 개화주의자들의 계몽담론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놀이관련 기사의 분석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매일신문』 놀이 관련 기사들의 목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매일신문』의 놀이 기사 목록

놀이의 종류		실린 호 (협 : 협성회회보, 매 : 매일신문)	기사 횟수
노름 (잡기)	산통계	매272호	1회
	골패	매95호	1회
	채회국	매111호	1회
	기타 ¹⁾	협5호, 매4호, 매6호, 매8호, 매24호, 매26호, 매28호, 매36호, 매47호, 매57호, 매61호, 매71호, 매83호, 매84호, 매87호, 매94호, 매97호, 매100호, 매115호, 매138호, 매148호, 매156호, 매158호, 매170호, 매188호, 매216호, 매217호, 매237호, 매252호, 매270호, 매271호	36회 33회
학교	운동회	매42호, 매45호	2회
	소풍	매18호, 매24호	2회
	방학	매71호	1회
아동	토론	매193호	1회
	병정놀이	매45호	1회
내기장기		매68호	1회
농담		매8호	1회
무등태우기		매240호	1회

불놀이	매208호	1회
시기행진	매242호, 매248호	2회
연날리기	협11호, 매227호, 매232호, 매239호	4회
외국인의 공연	매1호, 매47호, 매85호, 매274호, 매277호	5회
제비뽑기	매158호	1회
줄다리기	매240호	1회
팔씨름	매41호	1회
편싸움(석전, 햇불놀이)	협6호, 매221호, 매229호, 매232호 ¹²⁾ , 매242호, 매244호, 매245호, 매247호, 매249호, 매253호 ¹³⁾ , 매254호	12회
풍류 및 기생과의 놀이	매32호, 매68호, 매97호, 매100호, 매116호, 매117호, 매201호, 매228호, 매249호, 매273호	10회
총		83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일신문』에서 가장 많은 기사는 ‘노름(잡기)’이다. 따라서 먼저, 노름에 대한 『매일신문』 개화계몽주의자들의 논지를 살펴봄으로써 계몽논리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정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노름의 금지와 놀이관의 혼동

『매일신문』의 노름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노름의 정확한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당대에 주로 행해졌던 골패나 투전 혹은 쌍륙¹⁴⁾이라

-
- 11) 노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노름’, ‘잡기(잡귀)’로 나와 있을 따름이다.
 - 12) ‘편싸움(석전)’이나 ‘햇불놀이’로 추정된다.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월 이 십 구일 술시에 문밖의 화광이 있는거슬 대내에서 알아 드리라 흐시고 또 라팔 쇼리 난거슬 알아 드리라고 흐섯스되 순검들이 탐지 해야도 알지 못했더더라” (232호, 잡보, 2면, 1899.02.02.)
 - 13) 정황 상으로 볼 때 석전이나 햇불놀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동제일 수도 있다.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들 일일 밤 술시에 샤직골사는 인민들이 큰혜불을 명랑하게 혀셔들고 인왕산에 올라가서 허기로 순검들이 가서 물은즉 그 인민들 말이 힘마다 우리가 인왕산에 이째면 치성을 드린다고 흐엿다더라” (253호, 잡보, 2면, 1899.03.04.)
 - 14) 쌍륙으로 보이는 기사가 하나 있다. “중서 털물교 사는 장윤확이란 사람이 즈기

고 추측할 수 있다. 개화주의자들은 노름 금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물론 노름 금지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그 폐해에 대해서도 수많은 지적들이 있어왔다. 그런데 기존의 노름 금지에 대한 담론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일부 유학자들의 저서, 그리고 백성들의 소문을 통해서 유포될 뿐이었다. 그러나 신문의 등장은 노름에 관련된 ‘소문’이 ‘사실’임을 전제한 채 기사화 했다.

① 비야골 사는 김참봉이라 호는즈가 담비디 물주를 하면서 노름을 붓치는데 교동사는 리춘근이가 거기가 노름을 하다가 돈을만히 져는고로 김참봉즈이 장가라 호는놈을 보니여 지작일에 리춘근의 집에가 솟여숫기와 남비 두기를 써여 갖는디 김가가 이왕에도 노름빚으로 리춘근에 집문서를 잡고 또 이런짓을 흥흥디 리춘근에 어미 일흔세살된 알못보는 늘근이가 경무청에 쇼지호야 그 집문서와 빼앗긴 물건을 차져 달나고 호엿다더라 (47호, 잡보, 4면, 1898.06.02)

② 셔셔에서 경성 니외에 유명한 잡계군 윤원빅을 잡아 경무청으로 보내엿다더라 (115호, 잡보, 2면, 1898.09.12)

『매일신문』의 잡보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싣는 것이 아니라 사실(혹은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서사적 진실)로 전제된 기사문 속에 효과적인 계몽담론을 포함하고 있다. 노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누군가가 노름을 하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만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았다. 위의 ①의 기사는 “리춘근”이라는 자는 노름 때

집에 잡기판을 설치 호고 들창 문안에 사롬 둘을 파슈를 세우고 순검이 번듯 하면 노름 기계를 치어 업신 사돔에 노름 혼줄을 분명이 알고도 순검들이 잡기가 어렵더니 기형을 진심 진력호야 불과 괴일에 괴여히 잡는다 호는말이 잇더라” (97호, 잡보, 3면, 1898.08.19.) 이 기사에서 말하는 ‘기계’는 골패나 투전놀이의 도구들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아니다. 쌍륙은 3~4명이 둘러 앉아 즐길 수 있는 쌍륙판과 각종 관련 노름기구들을 갖고 있었으므로, 신문기자는 간단하게 ‘기계’라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문에 패가망신했으며 이 때문에 “일흔세살된 압뭇보는 늘근이가 경무청에 쇼지”해야 할만큼 불효하고 패역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흔세살된 압뭇보는 늘근이”라는 수사는 노름이 단순히 집안 재산만을 날리는데 그치지 않고, 인륜을 저버리는 짓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자가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노름의 폐해에 대한 경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매일신문』 잡보에 실린 기사들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지 않고 사실을 기자가 기록할 때, 계몽적인 의도를 지닌 효과적인 서사적 변용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다. 기자의 계몽 의도를 기사 속에 강하게 개입할 수록, 그 기사문은 때때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리기보다는 편집성이 가미된 서사적 경향을 드러냈다. 특히, 기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계몽의 의도를 본격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할 경우, ‘서사적 논설’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잡보에 실린 대부분의 노름 기사 역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노름하는 자들의 분쟁, 살인, ‘엄수’됨을 강조함으로써 비극적인 서사적 결말을 보여준다. ②의 기사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신문 기사에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골 ○○에 사는 아무개’라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여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고 결말을 짓게 마련인데, 이 기사문에서는 다짜고짜 “윤원빅”이라는 인물이 “경무청”으로 잡혀갔다는 결말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위 ‘잡기’행위의 결말을 뚜렷이 강조하는 기사들은 빈번히 발견되는데, 이는 노름꾼들이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강조함으로써 노름의 금지에 대한 담론을 유포·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노름의 금지에 대한 신문기사의 담론에서는, 이전 기록들의 노름을 금지하는 논리와는 사뭇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서즈너에 계집을 다리고 매음하는 잡류들이 여러 빅명인디 근일에

춘화일란 흙을 타서 덕절노 큰노름을 차리는데 계집들은 빅미 혼섬식
 니고 건들들은 형세유무로 스원이하로 스십전지 한하고 슈합호는디
 홀슈업는 건들들은 제계집의 침아도 벗기고먹든밥그릇도 드러니여 전당
 집에 다니노라고 골몰이 지낸다니 이런씨를 당호여 쓸갑시 고등호여 민
 정이 말못 된지라 못당히 저마다 스업상에 눈을발켜 구싱홀 도리를 힘
 쓸거시어놀 더런 잡류들은 세상에 난것만 금적이 역이고 장춧 압일을
 싱각지 못호니 이런빅성 들은 나라에 도로혀 업논이만 못호더라 (8호,
 잡보, 3면, 1898.02.19)

신문 기사와는 달리, 이전의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나 일부 지식인들의 서적에서 주장하는 노름의 금지 이유는 주로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한다. 즉 노름이 인간의 심성을 해치고 가산을 탕진하여 결국 도적으로 떨어져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신문 기사 역시도 “노름”은 “매음”, “전당”, “민정이 말 못 됨”과 같은 언어 재료를 바탕으로, 노름의 금지 이유에 대한 기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기자는 논평을 통해 “더런 잡류들은 세상에 난것만 금적이 역이고 장춧 압일을 싱각지 못호”기 때문에 “나라에 도로혀 업논이만 못호”다고 일갈하고 있다. 그런데 개화주의자인 기자가 말하는 “장춧 압일”은 단순히 한 “잡류”의 인생의 앞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자가 말하는 “압일”이란 문명진보에 기여하는 일을 의미한다. 노름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잡류”들은 문명 진보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해칠 뿐 아니라,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므로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개화와 문명진보, 즉 계몽의 논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놀이에 관한 담론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근대국민국가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존재일 뿐이며, 패가망신하거나, 죽거나, 엄수되어야 할 자들에 불과하다. 『매일신문』 놀이 관련 기사들에서 노름 관련 기사의 내용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약 43%)을 차지하는 이유도 근대 국민국가의 걸림돌인 노름을 지속적으로 계몽하여야 근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름 관련 기사의 상당수가 노름 자체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공식 명령을 신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기독교적 입장에서도 노름은 금지되어야 했다. 『매일신문』의 전신인 『협성회회보』는 당시 배재학당의 선교사들이 교육한 학생회가 창간한 신문이다. 따라서 『매일신문』이 기독교를 당대의 정신적 대안으로 표방할 때¹⁵⁾, 노름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 된다. 기독교 개화주의자들이 볼 때, 자신의 재산을 운에 내맡기는 노름은 신의 섭리를 시험하는 불경한 짓이 기 때문이다. 비록 『매일신문』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노름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기사는 발견되지는 않지만,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근대적 노동관이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할 때¹⁶⁾ 노름 금지 담론의 뿌리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노름들 중 특히 ‘채회국’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개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채회 행위가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려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채회국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회국은 당대의 놀이들 중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개화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채회국은 각국 시회가온디 인허를 승 호야 금년에 창설 호오니 첨 군
즈는 죠량 호시옵

회장 리두종 (『독립신문』, 광고, 1899.05.24. 4면)

15) 『협성회회보』 제1호(1898년 1월1일 발간) 「회중잡보」에는 협성회에서 행한 토론회의 주제가 18회까지 실려 있는데, 그 중 제7회차의 주제가 “우리나라 종교를 예수교로 흡이 가함”이다. 대한제국이 전근대성을 벗어나 근대국민국가 되기 위한 여러 방책에 대해 토론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근대국민국가의 걸맞는 정신적 대안이라고 여겼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지점이다.

16) 노명우, 「도박과 자본주의」, 『문화과학』 겨울호, 문화과학사, 2006, 214~216쪽.

채회국은 당시 서민들에게 금지되었던 ‘산통계’와 그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무청에서 인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추첨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광고가 버젓이 『독립신문』에 실릴 수 있었다.¹⁷⁾ 당시 경무청에서 채회국을 인가한 것은 채회국을 통해 얻는 수익을 군비 확충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1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모집인원에 수도 전체가 들썩이고¹⁸⁾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생겨난다. 특히 『독립신문』은 1898년 9월 12일부터 1899년 7월 25일까지 논설 2회, 판보 1회, 잡보 19회에 걸쳐 채회국 관련 기사를 실고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드른죽 전 평시서에 치회국을 설립 하고 회원은 1만명을 한 호야 들이고 치은은 각 이원으로 덩하고 등은 십등으로 난고 리두종씨가 회장이 되고 통을 흔들어 씹을 때에는 시위 일런디 대디장과 경무스가 참여 한다 하고 가량 오만량은 군부에 맞쳐서 군수를 보타게 한다 하니

-
- 17) 이 광고는 5.26일까지 총3회에 걸쳐 『독립신문』에 실리고 있다. 『독립신문』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하게 실린 이 광고는 『독립신문』의 재정적 열악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고, 신문의 논설, 잡보란을 싣는 기자와 광고란 기자의 업무 내용이 상호 분담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사례일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18) 조선 말기 한성부의 인구는 대략 2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고종 13년(1876년) 한성부 호수는 44,607호, 인구수가 198,37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대체적인 인구수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자세한 호수와 인구수는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310쪽 참조.) 따라서 채회국이 1만명의 회원을 모집한다고 한 것은 서울 시내 4가구당 1가구 꼴로 채회국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근방 지역의 사람들까지 서울로 몰려왔을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채회국 사건은 그 규모가 대단한 복권수익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독립신문』에 몇 차례 나타나 있는데, 그 중 “엇전 썩둡”이라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엇전 썩둡) 근일에 만회사와 치회국이 심겨 나서 인민이 폭주 한다더니 어저기 한성부와 경무청에서 너부 훈령? 더여 엄금 한다는 쇼문이 잇더라”(『독립신문』, 잡보, 4면, 1899.06.20.)

이런 못된 일은 엇지 그리잘싱기는지 분 흠을 익이지 못 햏야 그 폐단 되는 일을 대강 말 햏노라

첫지 이런 치회가 설혹 혼두 사람의게는 리가 엇드리도 전국에 히로 음은 두번 말 아니 햏여도 알지라 사람이 제 지조와 힘으로 돈을 벌면 집안도 흥 햏고 나라도 짜라서 부 햏거니와 노름을 햏던지 계통을 혼들 어셔 엇는 돈은 힘도 들지 안코 지조도 들지 안코 남의 돈을 공히 먹는 것이니 죽 도적질햏는것이라 먹는 사람도 흥 햏지 못 하고 나라에도 돈 이 더 늘지 못 햏며 빅성의게 유의 유식 햏야 게으르고 협잡 햏고 도적 질 훔 므음을 비양 햏는것이 공스 간에 대히라 텃리 인도에 다 버서나 는것을 누가 몰으리요

둘지는 노름을 금 햏는것은 우리나라의 큰 법이라 이전에도 각식 계 와 만인 계가 잇서서 허욕이 동햏야 피가 망신 햏 사람이 무수햏야 피 가 망신 햏 사람이 무수햏며 나라 풍속과 기강을 어지럽게 햏는고로 갑 오 경창훔 때에 길히 혁파 햏야 큰 민폐를 덜엇더니 이 악습을 다시 시 작 햏니 시작 햏는 사람들도 목석이 아니연정 엇지 참아 이러흔 일노 빅성을 속이며 법률을 억이며 나라를 욱햏는지 알수 업도다

셋지는 당금 세계 만국을 도라 보미 치회를 숭상 햏는 나라가 쇠잔햏 지 아니 햏 곳이 업스니 셔반아가 여송표라 햏는것을 반포 햏야 치회 경계로 돈을 모드니 그 나라 빅성이 쇠잔 햏야 필경은 미국 손에 무여 디 햏게 피햏야 나라가 망 햏게 되엿고 오륙년 전에 미국 남방에 루시 아나라햏는 심에 치회가 성형 햏야 인민의 지산을 망 햏기를 수가 업시 햏미 미국 정부에서 엄햏 법을 베푸러 이 치회를 파 햏엿스며 청국 디 방에서는 여송표가 성형 햏야 간란 한 사람의 신고 햏야 모흔 돈이 일 년에 괴릭 만원식 히를 보되 정부에서 금 햏지 아니 햏는것몬 보아도 청국이 각국의 수치 밧는것이 맞당 햏고 일본서는 기화햏야 정부는 빅 성을 보호 햏고 빅성은 나라를 스랑 햏야 치회 궂흔 잡짓은 일절 엄금 햏니 이 네나라의 흥망 성쇠몬 보아도 치회의 리히는 가히 판단 햏겏도 다 ……(하략)…… (『독립신문』, 논설, 1면, 1898.09.12.)

위의 논설에서는 채회국이 “노름”과 다를 바 없다고 전제하고 논리정연하게 채회국의 폐단을 밝히고 있다. 채회국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채회국이 노름과 다를 바 없으며, 노름은 노력 없이 남의 돈을 가

로차는 행위이기에 도적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노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채회와 같이 노름을 숭상한 나라들이 하나같이 쇠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회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조선은 도리어 관리의 허가가 났으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위해 노름을 금지하는 논리와 위의 채회국 금지의 논리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관리의 개입에 의해 채회국이라는 노름판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도 채회국을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게 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된다.¹⁹⁾ 국가에서 노름의 금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국가재정확충을 위해 채회국을 만들고자 한 시도는 근대국가들이 복권수익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채회국은 대한제국의 부실한 재정상태와 근대·전근대 사이에서 혼종된 놀이관의 양상이 잘 드러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해된다.

IV. 근면의 강조와 허용되는 놀이

노름하는 자들은 근대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한 일을 아무 것도 행하지

19)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이른바 채회국(彩會局)이라는 것은 바로 잡기(雜技)의 일종입니다. 경무사(警務使)의 책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엄격히 금지시켜야 하는데 도리어 인가하고, 며칠 전에 본부(本府)에서 내부(內部)에 조회(照會)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칙하여 금단하게 하였으나 또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議政府)가 안중에 없기가 어찌 이렇듯 극심하단 말입니까? 사체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경무사 남명선(南命善)은 본 벼슬을 면직하소서. 전날 만희사(萬喜社)를 인가한 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최영하(崔榮夏)로 말하면 지방관의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사전에 체직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소란을 일으킬 조짐을 열어놓았으니, 이미 체직되었다는 이유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39권, 1899.07.04.)

않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점에서 게으른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태만은 개화주의자들에게는 ‘근면’·‘문명’·‘학업’의 반대말이다. 따라서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위해 백성들을 근면과 성실함을 갖춘 국민들로 계몽해야 했다.

이전에 혼 노인이 도량이 너그럽고 지식이 광활 한중 지산도 유여 하고
 즈녀 손이 선선 호되 나히 칠십이 되도록 부지런호야 잠시라도 혼가
 히 노지아니 혼지라 일일은 동니에 사는 혼 소년이 그 노인을 차자간
 즉 그 노인이 업는지라 그집안 사름 다려 무른즉 더답 호되 동산 에서
 무슴 나무를 심운다 호거늘 그 소년이 동산으로 차자간즉 과연 그노인
 이 싹을 흘니며 슈죽에 흑을 못치고 짜홀파고 조고마흔 나무를 모종니
 야 심우논디 삭밭고 남에 고용살 듯 혼지라 ……(중략)…… 그노인
 이 상우혜 과실중에 비흔기를 들어 그 소년을향호야 말호되 그디가 년
 전에 나의 나무 심우는 거슬 보고 부절업다 호더니 그나무가 발서 자라
 쏘치 꿩고 열미가 여러 이비가 그나무에서 쏜거시니 맛술 보라 혼디 그
 손년이 그 비를 밧다 먹으며 말호되 시성이 이제야 세상리치를 씨닷겟
 스외다 디져 불식지공 이리야 만스를 다 성취 혼즐노 아난이다 호더
 라 일노 보드리도 무슴 일이던지 심녁을 써서 공부는 아니호고 편하게
 안져서 되기를 기다리느거든 세상에 제일 못 싱긴 사름이라 조고로 큰
 사업과 큰공을 일운 사름은 자나 췌나 누우나 안지나 잠시라도 마음을
 늦치 아니호고 죽을 지경을 몇번 지너도 잡은 마음과 괴운을 조금도 들
 이지 아니호고 게으르지 아니호는니 세상에 나셔 무슴 사업이 던지 싱
 각이 잇는 사름은 아모조록 부즈런이 힝 히가지고 잠시라도 게으르지
 마라 병든지 일곱히에 삼년 묵은 쑥을 구히기 어려움을 탄식 호지 마시
 오 (80호, 논설, 1면, 1898.07.21.)

위의 기사문은 전형적인 서사적 논설에 해당한다. 한 노인의 근면함을 목격한 소년이 깨달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서사화 함으로써, 이 기사문을 접하는 민중들에게 계몽적 교훈을 안겨주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는 이 기사문의 후반부에 “무슴 사업이 던지 싱각이 잇는 사름은 아모조록 부즈런이 힝 히가지고 잠시라도 게으르지 마라”라는 언급에서 확

정된다. 이처럼 근면함이 안겨 주는 서사적 해피엔딩의 방식은 노름꾼의 비참한 최후를 그림으로써 노름 금지 담론을 유포시킨 방식과 대비할 수 있다. 나아가 근면함의 결과로써의 해피엔딩은 신화화된 다음과 같은 기사로 제시되기도 한다.

평양북도 병년 오리면 송호촌에 사는 문경희씨가 일즉이 부모를 일코 동서 기결 하다가 이십세에 니르러 농업을 부즈러니 하며 장사에 눈이 열녀 십년이 못되여 가산이 부요 하였는디 근본 성품이 관후하여 착한 일을 도와 할시 험마다 가난한 일가와 동리에 가난한 사름을 구급할시 집업는 사름은 집을 사서 주고 쇼업는 사름은 쇼를 사서 주고 세도 밧지 안이 하며 ……(하략)…… (121호, 잡보, 4면, 1898.09.19.)

“부모를 일코 동서 기결 하”던 “문경희”라는 인물이 오직 “부즈러니” 일을 함으로써 “가난한 일가와 동리에 가난한 사름을 구급”하기까지 했다는 위의 기사는 근면함이 보여주는 하나의 신화라 할 수 있다. 하루 바삐 근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근면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던 근대계몽주의자들은 근면함의 신화화된 모델이 반드시 필요했다. 근면은 서구열강의 침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당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전략)…… 대저 부강한 나라에는 당초에 지물이 하늘에서 쏘다 지고 싸에서 소슨것이 아니라 나라일과 사스업에 잊지하면 부강하며 잊지하면 편리홀고 밤낮으로 일을하여 더긋치 크게 되었스되 오히려 부족하여 더욱 진보 홀을 열심으로 구하기에 날노 문명하여 더 무슴디경에 이를지 한량이 업거니와 우리나라 사름들은 안빈 낙도라는 학문에 저저서 죽술 연명이라도 호로 잇홀 지낼슈만 잇스면 막음에 풍족하여 스지를 게얼니 하다가 이디경에 이르미 기한이 도골흔즉 나중에는 도쿄 언잔은거슬분별홀슈업시되니과연 불 덥고 어름 참을 모름과 굿도다 만일 종시 수족을 늘니고 구차히 편안함을 구하다가는 나라일은 고사하고 주리고 얼어서 구멍텅이에 쓰러짐을 먼치 못홀줄을 분명히 이는비라 아모

도록 일심으로 분내고 나서서 일들 좀 힘써다 (4호, 논설, 2면, 1898.04.13.)

당대 조선이 제대로 된 근대 국가가 되지 못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개화주의자들이 비판한 대상은 구시대의 양반층이었다. 이들이 “안빈 낙도라는 학문에 저저서 죽술 연명이라도 호로 잊홀 지낼 슈만 잇스면 므옴에 풍족하여 스지를 게얼니”했기에 국가의 발전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근대화가 늦게 되어 “이디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양반층에 대한 이러한 반감은 기존의 수구주의적인 지배체제에 대한 반항의 논리이기도 했지만, 근대계몽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닌 구시대 권력층을 타자화하기 위해 세대론적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 양반층의 “안빈 낙도”를 태만으로 규정하고, “아모도록 일심으로 분내고 나서서 일들 좀 힘”보자는 근면 권유를 표명함으로써, 기득권으로부터 자신들의 담론 영역을 구별하여 새로운 권력지향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개화주의자들이 언제나 근면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국민’들의 근면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긴장을 풀고 구성원의 단합을 위한 휴식과 놀이도 요구된다.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해 열성적으로 공부에 매진했던 학생들의 운동회, 소풍, 뱃놀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행해졌다.

① ……(전략)…… 당일 오전에 모든 학원들이 본 학당에 모여 다 합동하여 가지고 일시에 썰나누디 압헤 티극 국기와 학당기를 쌍으로 버려세고 차례로 발 맞쳐 압셔 힘하고 뒤에는 어른들이 싸라 가누디 간간이 어런 아히들을 교군도 티고 다리도 쉬회며 화류를 구경홀시 그날 일기가 오후는 좀 흐린듯 하였으나 종일 풍일이 화창하여 호로 노는 사림의 흥치를 무궁히 도읍더라 어언간 장안을 나서미 언덕 싹과 시너버들은 닷도와 춘경을 자랑하여 만자 천홍이 변화 난만하디 방초 록음은 도쳐에 무료 녹아 진실노 곳마다 금슈 강산이라 이웃고 독립문에 이르

러 국기를 세워놓고 일제히 독립가를 부른 후에

대황데 폐하를 위하야 깃부게 만만세를 세번 부르니 사름의 흥기를 자아니는 중 겸하야 듯는자로 하여금 적이 감동함이 잇서 충군익국 할 마음이 절노 심기게 하는지라 대저 우리 나라 사름이 어룬 아히 간에 노리하는 자리에서 님군과 국가를 위하여 하는예식이 업섯거늘 이날 도 혼 공원디에 관동이 함피 모혀 깃분 마음으로 인국가와 만세를 부르는 바 그중 신기흔 거슨 조고마흔 아희들이 어린 입살노 소리를 크게하야 우리

대황데 폐하 만만세를 흥기니여 부르니 사름을 학문도 가라치거니와 어려서 붓혀 그마음을 충군익국으로 이긋치인도함은 진실노 서양 교스의 마르친 은공을 치하 할지라 만일 우리

대황데 폐하피서 이 것슬 보시게드면

성의가 티우 깃버하실니라 ……(중략)……

대황데 폐하를 피시고 독립가와 인국가로 만만세를 불너 무궁흔 락을 누리게 되기를 특별히 더 힘들을 쓸니라 (24호, 른셜, 1~2면, 1898. 05.06.)

② 대운동회 관광이라

이들 이십팔일에 각 외국 어학교 학원들이 동대문안 훈련원에서 대운동 헌단말은 전호에 임의 기지 하였거니와 당일에 대소관인과 외국 공영스와 각 학교 교사와 니외국민을 만히 청하였고 본회에도 청첩이 왔기로 사장이 회석에 참여 하였는디 ……(중략)…… 처음으로 쇠몽치 더지는 장원이 영어학원 리호성 송헌주 법어학원 리인규 제씨요 스틱보 다름질 장원에 영어학원 리호성 아어학원 티석현 한어학원 조대승 법어학원 립시엽 제씨요 테쇼흔 사름의 일빅보 다름질 장원 법어학원 리궁만 영어학원 김익동 아어학도 현웅건 제씨요 철구를 더져 관역 맞치는 장원 법어학도 조규현 사범학도 우병길 일어학도 장지풍 제씨요 널니썩 이는 장원 영어학도 리호성 법어학도 리궁만 영어학도 조홍순 일어학도 박응엽 제씨요 이빅이십보 다름질 장원 법어학도 리인규 영어학도 송헌썩 아어학도 티석현 제씨요 테쇼흔 사름에 눅흔썩임 장원 영어학도 김익동 법어학도 조희선 리궁만 제씨요 일빅보 다름질 장원 영어학도 리호성 법어학도 리중선 아어학도 리규룡 제씨요 눅흔썩임 장원 영어학도 리호성 법어학도 리인규 영어학도 리원상제씨요 씨름 장원 법어학원 리

인규 일어 학원 박응영 사범 학원 김병염 제씨오 줄 다리는 장원 사범
 학원 심인이오 나귀 달니는 장원 한어 학원 조중완 범어 학원 진학유
 일어 학원 홍순희 제씨인디 운동을 다 피흔 후에 영어 교스 허치선과
 이상 장원흔 학도들을 차례로 호명 호야 각식 물건으로 상급을 줄시 학
 원들이 상급을 받는데로 손뼉을 치며 깃분 모임을 이기지 못하더라 상
 주기를 필흔 후에 각 학원들이 일제히 모혀 인국가를 부르는데 듯는 자
 로 호여금 충의를 격발하더라 인국가를 파흔 후에

대항대 폐하를 위호야 일시에 만세를 부르고 ……(하략)…… (45호,
 1면²⁰), 1898.05.31.)

①은 소풍을, ②는 운동회 기사를 옮겨놓았다. 인용된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긴 이유는 기사를 비롯한 『매일신문』 편집진들이 학생들의 소풍이나 운동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사를 보면, 소풍이나 운동회는 공통적으로 “인국가를 부르”고 “대항대 폐하를 위호야 일시에 만세를 부르”면서 모임을 마치고 있는데, 이는 당대 학교에서 행해진 소풍이나 운동회가 충군애국의 정신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만인 앞에 공표함으로써 신식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학생들이 소풍을 통해 완상과 풍류를 즐기고 운동회에서 땀 흘려 서로 즐겁게 경쟁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대항대 폐하”의 성덕(聖德) 때문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소풍과 운동회의 놀이가 갖는 정치적 담론의 함의를 배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공식적인 놀이의 양상은 놀이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을 유포하기 위한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²¹⁾ 이는 뱃놀이도 마찬가지이다.

20) 『매일신문』 45호에는 논설 대신 이 기사문을 실었다. 논설이라 보기에는 글의 성격이 맞지 않아 논설이라 붙이지 않고 기사의 앞머리에 “대운동회 관광이라”는 말로 기사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두고 있다.

21) 한편 ②운동회기사에 나오는 놀이종목은 서구적인 것이 많지만 전근대적인 것도 섞여 있다. 씨름이나 줄다리가 그러한 놀이들이다. 이 놀이들은 운동회에

평양 보통문 안 학당 학도들과 대동문 안 학당 학도들이 비노리를 하
는디 비 머리에

국기를 찢고 인국가들을 불으니 귀경 하는 사람들과 길에 왕리 하는
사람들이 그노리 뜻쓸 물으니 교스 모뻏씨와 리길함씨와 쯔 여러 선성
들과 학도들이 디답하기를 이노리는

나라를 스랑 하고 빅성을 위 하는 뜻시라 혼즉 그사람들이 띠우 조흔
노리라 하고 쯔 학도들의게 못기를 너히 각각 므음에 싱각 나닌디로 글
즈 하나식을 불으라 하니 학도들이 디답하되 스랑이즈 맛들신즈 춤성춤
즈 효도효즈를 불으니 그사람들의 말이 오날 브터 학도들의 흥신 하는
거슬 보겏다고 하고 도라 갖다더라 (『독립신문』, 잡보, 2면, 1896.09.05)

뱃놀이는 조선시대 평양 대동강변에서 행해지던 호화로운 풍류놀이의 하나였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는 올곧게 보일 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사에 실린 뱃놀이는 충군애국을 홍보함으로써 놀이의 명분을 얻고 있다. 이는 근대국가건설을 위해 근면성을 발휘한 자들만이 풍류를 즐길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통제와 조절 없이 이루어지는 놀이행위들은 계몽의 논리에 어긋나는 악덕일 뿐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두 개의 기사는 이러한 사정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준다.

① 민영철씨가 룡산 화원경을 십만량에 사서 묘막으로 덩하여 찬란히
슈보 하여 늦코 일전에 락성연을 비설하고 몇몇 진신들과 기공을 갖췌
와 쥬야를 질기는데 강상에 범범흔 돛대와 안변에 의의흔 버들은 강경
즈 취흔긱의 춘홍을 도도으니 진실노 남아가 공성 신퇴흔후에 혼번홀만
흔일이더라 (8호, 잡보, 3면, 1898.04.19.)

삽입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풍요·주술적인 의미가 탈락하고 육체의 강화나
집단의 단합이라는 측면만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
지만 계몽담론에 의해 변형된 놀이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줄다리기는
『매일신문』 240호 논설에 악습의 하나로 낙인 찍혀 있다. 그러한 놀이가 운
동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정은 근대와 전근대가 혼종된 당대의 지식인 사회담
론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신입헌 황해도 관찰스 리은용씨는 본디 풍류남자로 음악을 도화향야 작전에 흥선부대부인홍서 호신지 스오일후 명성황후 대상전날 밤에도 리향의씨 집에서 기성과 풍류로 경야하고 그후에도 날마다 풍류로 쇼일 호노라고 양금 공부시키하며 간간히 니기 장고 두기로 세상근심을 사르노라고 지물도 더러 손히 호엿다더니 근일에 관찰스를 임헌후에 친구를 더호야 희쥬 기성이 얼마나 되는가 못더라니 리씨가 띠우 득의 호즐노 녀이논듯 호다고들 호더라 (68호, 잡보, 3면, 1898.06.27.)

위의 두 기사는 모두 풍류를 다루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긍정적 의미를, 후자의 경우는 부정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전자가 긍정적인 이유는 “진실노 남아가 공성 신퇴헌 후에 호번호만호일”이기 때문이고 후자가 부정적인 이유는 “관찰스를 임헌후에 친구를 더호야 희쥬 기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등 관찰사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풍류남자”로서의 면모만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놀이라 할 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놀이되는가에 따라 놀이행위자에 대한 기자의 가치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국민’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 놀이가 행해질 때만이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신문은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라 할 지라도 개화주의자들의 개화 담론에 맞도록 변용·가공된다.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신문 기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매우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면서도, 의도 상 정부 관리의 풍류를 비난하고 있는 다음 기사는 그 예가 되기에 적절하다.

만수 성절에 범부와 경무청과 경성 학당에 각식 음식과 풍류를 갖초아 질탕히들 노랏다더라 (116호, 잡보, 4면, 1898.09.13.)

고종 황제 생일인 만수성절은 음력 7월 25일이고, 이 기사는 양력 9월 13일(음력 7월 29일)에 발간된 『매일신문』에 실려 있다. 4일이나 지난 기사를, 그것도 만수성절에 대신들이 모여 풍류를 즐겼다는 신지 않아도

무방해 보이는 위의 기사를 실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용된 기사의 앞쪽에 배치된 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898년 7월 29일 『매일신문』에는 황제와 황태자가 커피를 잘못 마셔 위증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²²⁾ 황제와 태자가 커피를 마셔 위증하게 된 날과 만수성월에 대신들이 즐긴 날은 서로 다르므로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신문은 이를 교묘히 같은 날에 배치하여 황제와 황태자의 위독한 상황과, 대신들의 풍류를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사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일부 신문독자들이 대신들에게 비난을 퍼부을 여지를 마련해두었다. 대신들의 풍류를 “질탕히들 노랴다”고 다소 비꼬는 어투로 표현한 것 역시 이러한 의도를 노린 듯하다. 대신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지면 배치를 통해 대신들의 절제 없는 풍류를 비난하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다.

한편,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풍류를 즐길 수 있다는 논리는 일상생활에서 적실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일과 놀이를 당대 개화주의자들이 분리시켜 생각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과 놀이가 노동과 여가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주의 체제의 본격적인 토대가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²³⁾ 그들의 주장은 당위적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그것과 저녁에 대황제 폐하의 피오셔 황태자 던하와 궤치 양요리를 진어하시고 즉시 황상피셔와 황태자 피오셔 환후가 계오셔 대단이 위증 후신지라 봉시와 비빈들이 크게 놀나 진어하신 퇴션을 맛보와 무슴 아름 답지 못흔 맛이 잇는가 보다가 협시 비빈중에 맛 보는디로 병난 사름이 팔인인지라 그 양요리를 거헿 후든 관원과 속슈 합후야 십삼인을 즉시 경무청으로 잡아 보내엿는디 황태자 피오셔 더 침중 하시다 하니 우리는 대단이 황송후은 미침을 드리노라 (126호, 잡보, 3~4면, 1898.09.13.)

23) 박재환 · 김문겸,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대출판부, 1997, 13~21쪽.

V. 국가 폭력 독점의 한 양상, ‘편싸움’의 제거

놀이가 계몽담론에 의해 기사화 될 때 특정한 놀이들은 ‘야만의 풍속’이라는 낙인 하에 사라져야 한다고 여겨졌다. 앞서 보았듯 노름이 그 대표적이다. 이 뿐 아니라 <표-1>에 나와 있는 각종 놀이들 중 편싸움, 줄다리기, 산통계와 채회국, 무등태우기(민속극) 등이 악습으로 규정되었고,²⁴⁾ 연날리기 역시 전선(電線)을 감는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는 놀이하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²⁵⁾

이 놀이들 중 특히 편싸움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약 14%), 이는 계몽주의자들이 보기에 편싸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전근대적 악습이기 때문이다.

근일에 편싸움이 우심 헝기로
 칙령이 계시기를 순검과 병당들노 엄금 헝라고 헝섯다더라 (242호,
 잡보, 3면, 1899.02.20.)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 금지해야 할 만큼 19세기 말 조선에서 편싸움은 보편적이고 활발하게 벌어진 놀이였다. 심지어는 편싸움을 금지하기 위해 투입된 친위대 병력들이 편싸움을 금지시키지는 못하고 부상만 당해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²⁶⁾ 이는 국가 권력이 폭력을 독점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

24) 줄다리기와 무등태우기는 240호의 논설 1면에 금지되어야 할 악습으로 언급되어 있다.

25) 『매일신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와 있다. “이들 이십 이일에 누동 사는 김명복이가 년을 날니다가 년이 전기선 줄에 걸니여 거늘 그 년을 막디기로 나리다가 전기선 줄이 끈어 져는고로 김명복이가 순검의게 붓들었다더라” (227호, 잡보, 4면, 1899.01.27.) 일주일 뒤,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일월 이십 구일에 경무청에서 각서로 훈칙 헝기를 년줄이 던기선 줄에 걸니여 던어가 통헝기 어려우니 던기선줄 갖가 온디는 년을 날이지 못 헝게 헝라고 헝섯다더라” (232호, 잡보, 2면, 1899.02.02.)

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편싸움은 집단적으로 행해지며 때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놀이의 내용이 폭력적이라는 점, 게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온하다고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편싸움 집단들은 언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반란 폭도로 변질될 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경무청에서 경무서서에 신칙하기를 가로상에 인민들이 셋식 다섯식 모혀 잇스면 금 하고 편싸흠도 금단 하되 저당치 못홀지경이면 곳 본청으로 보하라고 하엿다더라 (249호, 잡보, 3면, 1899.02.28.)

만약 “인민”들이 모여 “셋식 다섯식 모혀” 증지를 모으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폭력을 독점화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올바르게 마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애당초 그 싹을 자르고자 위의 기사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이러한 공포심은 은폐되어야 하고,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한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편싸움이 백성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26) 군부에서 경무청으로 훈령하기를 인오기 류천 등지에 편싸흠을 금단 초로 친위 삼대대 각디 병명 오명식 파송 하엿더니 삼대대 대대장 리근용의 보고에 본디에서 파송한 병명 오명이 편싸흠 하는 신디에 가서 극력 하야 금단할 지음에 삼기서 사람이 만히 취당하야 와서 집을 부수고 사람을 상히기로 그 동리 사람들이 급히 와서 고 하기에 그곳에 간즉 편싸흠이 방장 극성 하디 그인히 중에서 편싸흠 금하는 병졸을 에워 싸고 무슈 란타 하며 군기를 창탈 하기에 부득이 허총을 공중을 향하야 놋코 목숨을 바리고 분발 하야 군기를 간신이 도로 차자스나 다 중상이 되엇는지라 병명 오명 중 김홍식 엄대순은 복장이 열파하고 머리와 팔리 상하야 치료하고 김진성 빅용복 김삼순은 방땃이를 마저 굴신을 못하디 하니 ……(하략)…… (244호, 잡보, 2~3면, 1899.02.22.)

편싸움을 우리가 금치 말나는뜻은 사람들이 운동 겸 하여 규칙 잇게 법률에 범치 안코 다른 사람의게들 조금치 헐기 업시 작란으로 하는거슬 우리가 활발 혼 작란인고로 죠타 혼거시지 근일 쇼문과 궂치 사람을 죽이며 백성의 집을 부시며 물건을 탈취 하며 부녀를 욕 하는거슨 불항당의 일이라 이런놈들은 법을 범흔 죄인들이니 법사에서 엄히 증치 하야 다시 이런 폐단이 업시 흠이 가 홀듯 하더라 (『독립신문』, 잡보, 3면, 1897. 02.27.)

“규칙”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행해지는 편싸움은 “불항당의 일”이 되는 “폐단”이 많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만약 위 기사의 “쇼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편싸움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아래 기사는 편싸움이 갖는 백성들의 실질적 피해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사실화 함으로써 편싸움 금지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금번에 편싸움 할 때에 삼기 인민비는 토정리 림순옥 림경춘 전희준 최원선등의 가산 집물과 대동 상죽막 문 벽과 박공서의 가산 집물을 몰수히 쳐 부취고 박공서의 집에 녀인을 무수히 란타 하고 은비나 혼기와 돈 스빅 오십량을 썩서 갖고 서강 신경동 인민비는 현석리 전덕신 박용택의 가산 집물을 모도 부취고 돈 스빅 팔십량을 썩서 갖는디 경무청에 다 잡히엿다더라 (『독립신문』, 잡보, 4면, 1897. 03.06.)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재산피해의 상황까지 자세히 보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편싸움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위의 사건이 정말로 편싸움 참가자들에 의해 일어난 재산피해인지는 확실치 않다. 위의 기사에서 피해당한 백성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가해자는 편싸움 기간의 혼란을 틈타 “인민”의 재산을 노략질하려 한 도적패들일지도 모른다.

당시 대한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놀이풍속에 많은 흥미를

느꼈는데 특히 대규모로 펼쳐진 편싸움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편싸움은 놀이의 격렬함에 비해 인명피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테면, 편싸움 도중 한 미국인이 그것을 구경하다가 돌을 던져 한 한국인을 죽이고 말았는데, 편싸움 군중들은 그 미국인에게 “약간의 고향, 항의 그리고 위협”²⁷⁾만을 가했을 뿐 그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과격한 놀이를 하면서도 놀이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G.W. 길모어는 편싸움에 대하여 “그러나 부상자가 적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숨을 넣어 만든 길게 늘어진 외투를 포함해서 참가자들이 겨울옷을 입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위협이 훨씬 적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²⁸⁾고 하여 편싸움이 기사의 내용처럼 재산강탈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또한 실제로 편싸움은 두 마을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강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상대방 마을에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했다는 위의 기사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의 기사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는 도적패의 노략질을 편싸움 패거리들에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구한 말 계몽주의자들이 유포한 편싸움 금지의 당위적 논리는 당대 신문독자들에게는 나름의 타당성을 얻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편싸움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편싸움을 금지할 수 있는 물리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세기가 바뀐 후 일제가 한국 내 폭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편싸움을 극심하게 탄압한 이후에야 편싸움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대해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울의 민간에서 행해지는 석전을 금지시켰다. 서울의 옛 풍속에는

27) 카를로 로제티 저, 앞의 책, 328쪽.

28) G.W.길모어 저, 앞의 책, 133쪽.

정월 상순에 남문 밖과 오강 위 아래로 집결하여 편을 갈라 투석전을 벌이는데, 치고받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어 사상자가 나는 것을 보통으로 여겼으며, 편전(便戰)이라고 부르고, 십수 일 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일본은 무예를 익히는 것으로 보아 싫어하여 군대를 파견해 엄금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그만두지 않아 발포 사격을 하여 겨우 해산시켰다.²⁹⁾ (1908년 1월)

편싸움은 전근대에 있어서 상무적인 의식과 행동을 권장하는 기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³⁰⁾ 일본은 발포사격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려 했다. 이는 편싸움이 자칫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군사적 대응 방식으로 변형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한청역부충돌 평양던보를 거혹즉 본월이일밤에는 교량만 염 밧헤서 청인역부 삼빅명과 한인역부 칠빅명이 크게충돌되야 석전을호였는디 피차간에 상훈자가 만헛고 작일상오삼시에야 진당이되였스나 그 원인인 즉 평일에 서로 갈등이난 사둑이라더라 (『대한매일신보』, 잡보, 2면, 1910.06.05.)

한인과 청인 역부간의 갈등이 편싸움으로 비화되었다는 위 기사는 편싸움의 본래적 의미가 퇴색하고, 도시빈민노동자 간의 갈등과 투쟁의 해결방안으로 변질된, 편싸움의 변형된 형태이다. 일제의 입장에서, 다수 피지배층의 빈발하는 투쟁의 양상은 달가울 수가 없다. 편싸움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통해 지배체제에 대한 전복의지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신문지상의 편싸움 금지촉구와 일제의 폭력적 규제가 민중들에게 내면화되면서, 수천 년 간 이어져 온 편싸움은 그 전승의 맥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³¹⁾

29) 황현, 「매천야록 권6 1월조」,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하』, 문학과 지성사, 2005, 455쪽.

30) 박환규, 「조선시대 세시풍속에 관한 고찰 -석전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제3호, 1998, 8쪽.

VI. 마무리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각종 놀이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계몽담론의 충격과 함께 일련의 재편과정을 겪게 된다. 계몽담론의 생산기지 역할을 자임하던 당대 신문들 중 『매일신문』은 기존의 관습적인 놀이들을 있는 그대로 신지 않고, 개회주의자들의 계몽담론에 합당한 놀이만을 기사화했다. 나아가 기존 놀이 중 근대국민국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부를 금지시키려고까지 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실제로 행해지던 놀이들은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개화담론의 변형대로 호출했다. 전형적인 미미크리인 병정놀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연날리기가 특정 개화담론을 산출하기 위한 의도적인 상황 설정의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든지, 놀이판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사소한 시비를 백성들의 계몽담론의 내면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놀이는 계몽담론의 연관성 하에서만 기사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기존 놀이들을 금지하려는 담론으로 이어졌다.

『매일신문』에 기사화 된 놀이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자랑하는 “노름”의 경우, 근대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해 백성들이 반드시 금해야 하는 놀이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신문은 잡보와 논설의 서사적 형식을 빌려, 주로 노름꾼의 비참한 결말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홍보했다. 1898~1899년 가장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채회국” 사건의 경우에서도 노름 금지의 당위적 논리로 채회국을 규탄했다. 그런데 채회국은 국가가 인가한 공식적인 수익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의 부실한 재정상황과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서 혼종되고 있는 놀이판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31) 또한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 스포츠의 보급과 장려 역시 편싸움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노름 기사와는 반대로, 근면한 자들에 관한 기사는 해피엔딩을 강조했다. 근면 강조의 계몽전략은 근면한 자의 해피엔딩을 신화화함으로써 근면 성실이 새 시대에 필요한 적합한 생존의 태도임을 예시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근대계몽의 첨병을 자임했던 신식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운동회, 소풍, 뱃놀이처럼, 놀이는 근면한 자들에게만 허용되었다. 풍류에 있어서도 근면한 자들의 풍류가 긍정적인 반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자의 풍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근면의 강조를 위해서였다. 이러한 개화주의자들의 논리는, 그들이 놀이를 일과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당대 놀이 중 노름과 함께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또 하나의 놀이는 “편싸움”이었다.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편싸움을, 신문은 인명과 재산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그 근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편싸움은 일제가 한반도 내 폭력의 독점권을 갖게 되면서 완전히 제거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노름과 차이가 있다. 이는 일제의 상무정신 말살책의 일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편싸움 금지 논리를 민중들이 계몽담론적 차원에서 내면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처럼 근대 신문에 나타난 놀이들은 개화계몽담론에 의해 변형·금지·제거됨으로써 일련의 재편집과정을 겪게 되었다.

주제어 : 근대국민국가, 계몽담론, 놀이, 매일신문, 재판

참고문헌

1. 신문 자료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문』, 『독립신문』, 『협성회 회보』

2. 논저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김광득,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1995.

노명우, 「도박과 자본주의」, 『문화과학』겨울호, 문화과학사, 2006, 214~216쪽.

민족문화사 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박재환·김문겸,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대출판부, 1997, 13~21쪽.

박환규, 「조선시대 세시풍속에 관한 고찰 -석전을 중심으로」, 『교양교육 연구소논문집 제3호』, 1998, 8쪽.

서울시립대인문과학연구소 편, 『한국 근대문학과 민족-국가 담론』, 소명출판, 2005.

손정수, 「개화기 서사의 장르적 성격」, 『상허학보』 제10집, 2003.

신용하, 『독립신문 연구』, 일조각, 1980, 34~35쪽.

이상목,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 출판부, 1996, 17~23쪽.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이효재,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서울출판사, 1994.

정교 저·조광 편, 『대한계년사』 3·4·5권, 소명출판, 2004.

정선태, 「계몽의 담론 -개화기 문화적 서사담론의 정치적 리얼리즘에 관

- 한 연구시론, 『외국문학』 여름호, 1996.
- 채백, 『신문』, 대원사, 2003, 49~53쪽.
-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제13호』, 한국독서학회, 2005.06, 223~224쪽.
- 황현 저·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하권, 문학과 지성사, 2005.
- G.W. 길모어 저·신복룡 역, 『서울 풍물지』, 집문당, 1999, 121~139쪽.
- J.호이징하 저·김윤수 역, 『호모루덴스』, 까치, 1998, 9~27쪽.
- 로제 카이와 저·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35~70쪽.
- 스튜어트 킬린 저·윤강봉 역, 『한국의 놀이』, 열화당, 2003.
- 까를로 로제티 저, 윤종태·김운용 역,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학 연구소, 1996, 328~331쪽.

<Abstract>

A Study of The civilization enlightening discourse and modern reorganization of playings

Son, Nam-Hoon

All kinds of playings which arose autogenously in this country were experienced a series of reorganizing process with the shock of the enlightening discourse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the early era of 20th century.

『*Meil-Sinmun*』, one of the main newspapers which roled as production bases of the enlightening discourse didn't deal with all the existing forms of customized playings as they were, but published only the games corresponding with the enlightening discourse from the people who wanted to enlighten the nation. Moreover, it attempted to prohibit some of them not suitable to a modern nation-state. The particular examples are the below.

First, the playings actually played were called a variety of the enlightening discourse as they were on newspaper. For example, playing soldiers, the typical mimicry and flying kites that could be seen everywhere were functioned as the medium of intentionally established situation to produce some particular enlightening discourse. Also, some mere quarrels caused by misunderstanding the playing place were thought as the general public's internalizing process of the enlightening discourse.

playings are publish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 of the enlightening discourse and, necessarily, it led to the discourse to prohibit the existing playings.

In case of gambling games which were published most frequently was the must-prohibited playing to establish the modern nation-state. Newspapers publicized the necessity of prohibiting gambling games using the general-news column and the editorial column in narrative form, and emphasizing gamblers' tragic conclusion to express efficiently. In the other case of '*ChehoYGuk*' - the biggest social issue in 1898 ~ 1899 - it was censured for the logic of prohibiting gambling games. Though '*ChehoYGuk*' was the official profit enterprize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and it indicated the poor financial state of '*Daehan empire*' and the aspect of the view on playings being mixed between the modern age and the premodern.

In contrast to the articles about gambling games, other articles about diligent people emphasized happy endings. Diligence-emphasizing enlightenment strategy mythologized the diligent people's happy endings and by them, it was expressed that diligence is the proper attitude to survive for a new age using the method of exemplification.

Sports meetings, picnics and boatings played by students who were in the new education, a point of the modern enlightenment, were admitted as the playings for diligent people.

In case of elegance, the reason why elegance enjoyed by diligent people was positive, but one enjoyed by the people who is not responsible for their jobs is negative shows the dual attitude of the people who tried to civilize the nation, and they thought playings and

jobs separately.

The other playing which must be prohibited like gambling games was a gang fight. It was extremely premodern and violent, and newspapers publicized logically the necessity of eradicating it by publishing the involved people's name and the amount of financial loss in details. However, gang fights were different from the gambling games, because they were completely eradicated as Japanese Imperialism hold the monopoly of violence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was because of the policy from Japanese Imperialism to remove the miliaristic spirit, and also because the mass of the people internalized the logic of prohibiting the gang fight adhering enlightening discourse.

Thus, the playings appeared on the modern newspapers were transformed, prohibited, and eradicated by the civilization enlightening discourse, which led to a series of reorganizing processes.

Key Words : modern nation-state, enlightening discourse, playings, *Meil-sinmun*, reorganization